

4개 지역 上水道요금引下

釜山 大邱 仁川 濟州, 병협 건의로

10월 1일부터 부산을 비롯한 대구·인천·제주 등 4개 지역의 병원 상수도요금이 영업 3종에서 영업 2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국 병원의 수도요금이 모두 인하됐다.

내무부는 대한병원협회의 건의에 따라 지난 1983년 10월 부터 전국병원의 수도요금을 영업 3종에서 영업 2종으로 변경조치 했으나 부산·대구·인천·제주 등 4개 지역은 稅收의 감소를 이유로 조정을 유보해오에 따라 병협은 재차 이들 4개지역에 대해서도 중별변경을 건의, 이를 내무부가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전국병원이 수도요금 절감의 혜택을 받게된 것이다.

이번의 조치로 추가로 수도요금 절감의 혜택을 받게된 4개 도시의 병원은 모두 83개 병원으로 이들 4개 지역에서 연간 총 2억 3천 8백여만원을 절약케 됐다.

汚染 세탁물 관리 철저

保社部는 전국 각급 의료기관에 병독오염 세탁물 관리를 철저하게 줄 것을 당부했다.

보사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기관의 실정에 따라 외부 세탁용역업자에게 세탁을 위탁하는 경우,

업자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오염된 세탁물과 일반 세탁물을 혼합하여 운반하거나 분리세탁을 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 세탁물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병원협회 등에 요청해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2(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별표3·시설규격 27) 세탁시설에 따르면 「병독이 오염된 세탁물과 다른 세탁물을 분리하여 저장할 수 있는

시설과 세탁기 및 소독기 등 세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것」을 규정하고 병독이 오염된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분리하여 세탁토록 하고 있다.

한편 병원협회는 수련병원의 경우 「병원표준화 심사요강」 제17부문 「리넨과 세탁」 부문을 참고하여 세탁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부 세탁용역업자에 위탁하여 세탁을 하는 병원은 세탁물 처리과정을 확인,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위생에 危害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 통보했다.

医療法人 증여세 免税 건의

國稅庁 “出捐목적에 付合되어야”

국세청은 상속세법에 의거 공익 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의료법인이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의료법인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일 것 ② 출연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출연자나 그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가 되지 아니 할 것 ③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있는 의료법인이 아니어야 할 것 등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1일 대한병

원협회가 의료취약지역에 설립된 의료법인중 비의료인의 出捐이나 특수관계 등의 문제로 10여개 의료법인 병원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의료법인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증여세 면제를 건의한데 대한 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병원협회는 이 건의에서 정부에서 民資유치를 위해 의료법인 설립 당시 시설자금과 차관자금을 융자하고, 특히 경영이 어려운 병원에 대해서는 병상당 13 만원을 국고 보조해주는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들어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 증여세의 면세를 건의했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회신에서 비과세 의료법인의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는 현행 법상 당해 재산을 그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이점 유의할 것을 아울러 강조했다.

日학회 참석 一行 귀국

白樂院대한병원협회회장 등 제 35회 일본병원학회에 참석한 일행이 23일 부터 27일사이에 각각 귀국했다.

제35회 일본병원학회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동안 일본 이세市에서 열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白회장을 비롯 趙雲海 아시아병원연맹 명예회장 등 15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국제 의료기전시회 盛況

제 3회 국제의료기기 전시회가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동안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열려 많은 의료관계인사가 참석성황을 이루었다.

20일 오전 11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손제석문공부장관, 이현기보사부차관, 박권흠국회문공위원



病協, 군경유자녀원에 위문품 전달

大韓病院協會는 9월 28일 자매결연기관인 군경유자녀원을 찾아 냉장고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추석을 맞은 고아들을 위문했다.

장, 장경식병원협회부회장 등 관련인사가 참석했다. 대한병원협회가 후원한 이 전시회에는 많은 국내의 의료기기업체

가 참여 ▲마취 ▲중앙멸균재료 ▲병동 및 ICU, CCU 설비 기기 등의 최신 의료기기들을 선보였다.

1백 80일 被保險者에 환수

保社部, 病協 건의에 회신

保社部는 医療保險환자, 급여기간 1백80일 이상 초과자가 발생했을 경우, 초과급여액은 보험자가 요양취급기관에서 환수하지 말고 피보험자에게 직접 환수토록 조치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대한병원협회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보사부는 최근 병원협회의 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현실적으로 피보험자가 요양취급기관을 달리했을 경우 진료일수 연계합산이 불가능하므로 요양급여기간 관리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본인과 보험자의 사후관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 이와같이 조치했다.

이와함께 보사부는 요양취급기관은 피보험자증의 급여기록관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수진자는 기록 내용을 확인 할 것과 만약 요양취급기관이 급여기록란의 기재를 빠뜨렸을 경우 수진자 스스로 기재토록 한 후 보험자에게 반환토록 하여 보험자의 사후관리업무에 활용토록 당부했다.

그런데 급여기간 1백80일 이상 초과될 경우의 환자는 현재 일반환자로 간주토록 되어 있는데, 保社部는 이 경우 보험카드에 당해년도 「급여기간 종료」라는 날인을 하도록 요양급여기관에 당부했다.

江南病院 일일치집 열어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9월 20일 직장정화위원회 여직원이 중심이



◇江南病院은 9월 20일 일일치집을 열었다. 이날 수입금의 추석을 맞아 불우환자 위문에 쓰였다.

되어 추석절을 맞아 병상에 누워 있는 불우환자를 위문하기 위한 일일치집을 열었다.

이날 수입금 모두는 추석날 병상에 누워있는 불우환자들을 위한 위문품 마련에 쓰였다.

光赤병원장에 李南宰씨

광주적십자병원은 지난 9월 10일자로 林廷澤병원장 후임에 李南宰씨를 새로 병원장에 임명했다.

대한병원협회지

(通卷 128 號)

'85년 10월호 (月刊)

등록일자: 1972년 4월 27일

등록번호: 제 라 1691호

인쇄일: 1985년 9월 30일

발행일: 1985년 10월 1일

發行人: 白樂院

編輯人: 黃泰植

印刷人: 金善勳

발행소 社團法人 大韓病院協會

우편번호 10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49 전화: 275-7066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Vol.14, No 10

OCT. 1985

Publisher: Nak Whan Paik

Editor in Chief: Tae Sik Hwang

Published Monthly

by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49, 2-Ga, Chung Moo-Ro,

Seoul, Korea TEL. 275-7066

□ 編輯委員: 韓斗鎮 朴利甲 金教命 黃泰植 梁萬奎

* 이 協會誌에 게재된 내용은 반드시 本會의 公式的인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